

# 전쟁 없는 평화의 시대를 희구하며

“아름답고 의로운 전쟁이란 없다”...

역사적 상처 딛고 평화체제 구축 위해 힘써야 할 때

윤홍길 | 소설가·한서대 문예창작과 교수

“지금껏 다른 어느 분야 못잖게 문학쪽에서는 전쟁과 분단문제를 중요시해 왔다. 수많은 작가들이 수많은 작품 속에서 다른 전쟁의 모습은 평화의 반어적 표현이다. 평화에 대한 염원을 거꾸로 전쟁 그림 속에 담아내는 형식이다. 우리 작가들이 작품을 통해 자주 전쟁의 폐해를 증언하고 분단의 비극을 그리고 이산의 고통을 토로하는 이유는 바로 평화에 대한 갈망과 희구에 있다.”

세상에 ‘아름다운 전쟁’이란 게 실제로 가능할까. 인류 역사상 그런 전쟁이 단 한차례라도 있거나 했던가.

15세기 영국을 휩쓴 내란을 가리켜 흔히 장미전쟁이라 일컫는다. 왕위 쟁탈전을 벌인 두 명문거족 랭커스터가와 요크가가 각각 빨간색 장미와 흰색 장미를 휘장으로 사용한 데서 비롯된 명칭이다. 아름다운 꽃이름으로 전쟁을 장식했다 해서 전쟁 그 자체가 아름다워질 리 만무하다. 장장 30년간에 걸친 처절한 내전은 결국 랭커스터가의 헨리 7세가 튜더 왕조를 개창하고 요크가의 엘리자베스를 왕비로 맞이하는 것으로 끝났다. 얼핏 보기에 랭커스터가의 승리 같지만, 실상은 진정한 의미의 승자가 없는, 쌍방 당사자 모두가 패자로 전락하고 만, 결코 아름답지도 향기롭지도 않은 전쟁이었다. 장기간의 내란으로 기력을 소진한 끝에 봉건귀족이 몰락하고 국가주권이 의회로 옮겨가는 단초를 열었다는 점에서 장미전쟁은 두 명문가에게 애당초 시작하지 않느니만도 못한 결과를 안겨줬다.

## “모든 전쟁은 악이다”

전쟁 당사자들은 서로가 자기네를 정의의 군대, 선의 세력이라 주장하는 한편 상대방은 불의의 군대, 악의 세력으로 규정한다. 이를테면 악의 세

력을 응징하기 위해 일어난 정의의 군대라는 식이다. 하지만 세상에 과연 ‘의로운 전쟁’이란 게 실제로 가능할까.

얼마 전 로마 교황은 십자군전쟁 등 신의 이름으로 일으킨 과거의 종교전쟁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피해를 입었던 이교도의 국가와 민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청하는 역사적인 메시지를 발표한 바 있다. 회교도에 점령된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해 순례자들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한다는 대의명분 아래 11세기 말부터 13세기 말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중세 유럽 각국이 팔레스티나 원정대를 파견했던 십자군전쟁은 이제껏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종교적 신념과 이상의 실현을 위한 성전, 즉 의로운 전쟁으로 인식돼 왔다. 하지만 전후 2백년간에 걸쳐 2백만명 이상의 인명을 희생하고도 끝내 목적 달성에 실패한 십자군전쟁의 이면에는 종교적 목적 말고도 경제적인 이해관계와 이민족 간의 분쟁해결이라는 또다른 불순한 목적들이 개입돼 있었던 게 사실이다.

아름다운 전쟁, 의로운 전쟁이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 극단의 폭력을 유일한 해결수단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모든 전쟁행위는 악의 편에 속한다. 이상의 실현을 위한다는 구실도, 상대방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함이라는 구실도 전쟁을

정당화하지는 못한다. 불의를 응징하기 위한 전쟁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독립전쟁이나 해방전쟁도, 종교적 신념에 따른 성전마저도 다만 필요악일 뿐, 전쟁 그 자체가 결코 선은 되지 못한다. 전쟁이란 최악의, 최후의 수단을 통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 같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그것이 바로 선이다.

먼저 양편 대장이 진두에 나와 창검을 휘두르며 몇 합을 겨룬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싸움의 승패가 결정되는 《삼국지》식 옛날 전쟁은 그래도 애교스럽고 여유가 있으며 인간미가 풍기는 전쟁이었다. 소총과 대포 등 재래식 무기가 동원된 과거의 전쟁만 해도 그러저럭 봐줄 만했다. 첨단 대량살상 무기들이 동원되고 그것의 뒷전에서 가공할 핵무기와 생화학무기가 여차하면 터질 태세로 제 차례를 기다리는 현대전이야말로 비인간성의 극치를 이룬다. 인간이라면 최소한 죽을 때 자기가 시방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죽어가고 있다는 것쯤은 당연히 알아야 하고 또 짧게나마 명료한 의식으로 자신의 생애를 정리하면서 삶을 마감하는 것이 인간다운 죽음일 것이다. 인간이 인간답게 죽을 기회를 원천 봉쇄하면서 죽음을 의식할 겨를조차 안 주고 순식간에 폐죽음으로 몰고가는 전쟁은 인간끼리의 전쟁이 아니라 살인도구 대 살인도구의 전쟁이다. 인간을 배제한 채 기계들끼리 서로 우월성을 다투는 전쟁에서 승자와 패자를 가른다는 건 애당초 무의미한 짓거리일 수밖에 없다. 현대전 또는 미래전에서는 전쟁 쌍방 모두에게 치참한 공멸만을 강요하게 될 것임에 틀림없다.

작년 여름, 6·25 발발일에 때맞춰 미국 몬태나대에서 몬테나 출신 원로 정치인 마이크 맨스필드를 기념하는 맨스필드연구소 주최로 ‘한국

전쟁에 관한 대화'란 명칭으로 마라톤 대화의 장이 열렸다. 문학예술 작품에 나타난 전쟁의 양상을 통해 한국전쟁의 의미를 되돌아봄으로써 전쟁의 폐해를 증언하고 평화를 희원하는 생생한 목소리들을 정부의 정책 입안자들에게 전달하자는 취지에서 한·미·중·일 4개국 인사들을 초청해 벌인 행사였다.

#### 한국전쟁을 바라보는 잘못된 시각

그간 전쟁에 따른 분단과 이산의 비극을 자주 작품으로 다뤄 온 작가의 일원으로 그 행사에 참석한 나는 대화 첫 날부터 흥분 상태로 시작해서 행사 기간 내내 자괴감에 시달려야만 했다. 미국인 참석자들 다수가 한국전쟁을 미국의 남북전쟁과 비슷한 내전의 성격으로 파악하는 눈치였다. 내전이기에 때문에 미국엔 전혀 책임이 없고 외려 곤경에 처한 우방을 도와준 은공만 있다는 식이었다. 미국 역사상 미군이 승리하지 못한 최초의 전쟁이란 점을 유난히 중시하는 듯한 그들의 태도에 화가 났다. 중국의 자위를 위해 내전에 휩싸인 자기네 우방을 도와줬을 뿐이라는 중국인 참석자들의 주장에도 화가 났다. 읊서버로 참여한 일본인 학자의 침묵에도 화가 났다.

너무도 억울하고 분한 나머지 나는 내전보다는 국제 대리전의 성격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 1905년 미국과 일본이 체결한 '태프트-가쓰라 협정'까지 들먹이지 않으면 안 됐다. 필리핀에서 미국의 이익을 일본이 양해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일본의 한반도 경영을 양해한다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는 식으로 사이 좋게 나눠먹기 하는 그 협정이야말로 한국전쟁에 대한 원초적 책임이 미국과 일본에 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것으로 한반도라는 옷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운 미국의 행위는 그후의 역사에서 한반도의 운명을 번번이 빗나가게끔 만들어 식민통치를 받게 하고 분단 상황에 처하게 하고 마침내 끔찍한 전쟁의 결과까지 낳지 않았던가.

무엇보다도 나를 가장 화나게 만든 것은 바로 나 자신이었다.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었다. 오죽이나 우리가 못났으면 마치 조직깡패 두목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 생선회칼과 야구방망이를 마구 휘두르는 말단 행동대원처럼 강대국 이데올로기에 휩쓸려 동족을 마구잡이로 죽였겠는가. 또 얼마나 지지리도 못났으면 반세기 전의 목은 원한을 아직도 풀지 못한 채 지구상의 모든 나라를 통틀어 가장 지독하고도 가장 썩썩한 분단과 대결상황을 여전히 고수함으로써 이렇듯 수많은 외국인들로부터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고 있을까. 외국이란 명칭한 거울에 비치는, 남루하기 그지없는 자화상을 들여다보는 동안 나는 두고두

고 서글픔을 곱씹어야만 했다.

전쟁은 결단코 문명의 논리가 아니다. 인간의 논리도 아니다. 전쟁은 야만의 논리며 약육강식이 판을 치는 짐승 세계의 논리다. 더욱이 전쟁 중에서도 동족상잔의 전쟁이 야말로 진화가 덜 된 하등 생태계나 보일 법한 야만적 본능의 표현에 다름 아니다. 동족상잔의 전쟁수단을 통해 우리가 얻은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아니, 있다. 쓸 만한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절대적 상실감에서 비롯되는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절망과 슬픔과 고통을 얻었을 따름이다. 또 있다. 적대감이다. 무관한 상대에게 당한 손찌검이나 배신보다 가까운 피붙이로부터 당한 그것들이 더 아프고 분하게 느껴지는 법이다. 설마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던, 절대로 그러지 않으리라 믿었던 상대가 때문에 작용에 대한 반작용은 더욱 커지게 마련이다.

#### 전쟁문학은 평화희구의 반어적 표현

해방 후의 우리 역사는 키울 대로 잔뜩 키운 양쪽의 적대감을 키재기하는 불행한 역사였다. 6·25 그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장장 반세기에 걸쳐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어 왔다. 그 어떤 신통력으로도, 그 어떤 이데올로기로도 되살려낼 수 없는 소중한 인명이나 인간관계의 훼손은 말할 나위도 없고, 전쟁을 치르거나 전사와 다름없는 대결구도를 유지하는 일에 천문학적인 액수의 재화를 민족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에 사용했다면 지금쯤 아마 우리는 세계의 일등국이 되고도 남았으리라. 전쟁의 상처와 분단 대치의 후유증에는 곧 치명적인 약점이 돼 국제사회에서 반세기 동안 우리를 노리갯감으로 만들곤 했다. 강대국은 물론 심지어 인구 몇만의 약소국들마저 UN에서 한표를 행사한다는 유세로 걸핏하면 한국을 집적거리 자기네의 정치적 목적과 경제적 이득을 챙기기 바빴다. 그럴 적마다 우리의 민족적 자긍심과 인간적 존엄성은 형편없이 망가지곤 했다.

지금껏 다른 어느 분야 못잖게 문학 쪽에서는 전쟁과 분단 문제를 중요시해 왔다. 수많은 작가들이 수많은 작품 속에서 다룬 전쟁의 모습은 평화의 반어적 표현이다. 평화에 대한 염원을 거꾸로 전쟁 그림 속에 담아내는 형식이다. 한국의 작가들이 작품을 통해 자주 전쟁의 폐해를 증언하고 분단의 비극을 그리고 이산의 고통을 토로하는 이유는 바로 평화에 대한 갈망과 희구에 있다.

결코 이루지 못할 꿈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지던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됐다. 그동안 분단문학의 말석을 지켜온 내가 이번 회담을 벅찬 감격 속에 바라본 것은 민족 구성원 전체의 감격과 차이가 없을 줄 안다.●